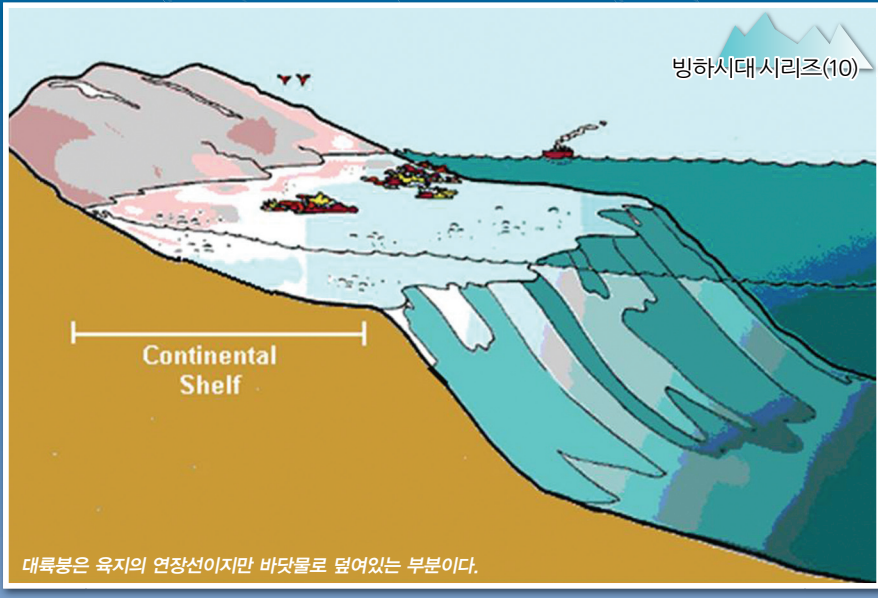


CREATION TRUTH



바벨탑- 빙하시대가 일어난 이유(1)

과연 엄청난 눈이 내리고 동토와 사막을 남겨놓았던 광역적인 빙하시대는 왜 일어난 것일까? 노아홍수 동안 따뜻해진 바닷물이 홍수 이후 우연히 다발적인 대규모 화산활동이 겹쳐서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으키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피조물에게 항상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always)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그러므로 이런 지구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단지 자연적 조화로 일어났을 리 없다.

성경에는 인간이 어떤 일을 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치로 땅에 행하셨던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있다. 예를 들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시고,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모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여시며 심판하셨다. 그렇다면 빙하시대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베링해는 빙하시대에는 대륙붕이 드러나 사람이 건널 수 있었다.

노아홍수 이후에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일까? 결국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당시 상황이 기록된 성경을 열어보아야 한다.

앞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빙하시대는 홍수 심판사건이 끝난 후 200년경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성경에는 홍수 종료와 2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때 인류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창세기 10-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기록을 보면 10장은 족보와 함께 당시 흩어진 나라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11장은 당시 인류가 행했던 일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10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한 설명이 부여된 두 사람이 있는데, 니므롯과 벨렉이다. 성경적 정황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모두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주목 받을 만 하다. 이중 니므롯은 바벨탑 쌓는 일에 주동자로 보인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mighty) 사냥꾼”(10:9)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즉 “용감하다(mighty, 능력 있는)”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자신이 꺾어 찬 것이다. 또한 그가 세운 네 나라 가운데 “바벨”이 등장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10:10).

한편 벨렉 때는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10:25)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바벨탑을 주동한 인물이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흠으셨던 시기가 바로 벨렉이 태어났던 때로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 니므롯은 노아-함-구스로 이어지는 노아의 4대 손이다. 한편 벨렉은 노아-셈-아르박삭-셀라-에벨로 이어지는 노아의 6대 손이다. 족보 상으로 볼 때도 그 순서가 일치한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족에게 “땅에 충만하라”(창 9:1)고 했던 명령을 “흩어짐을 면하자”(11:4)라고 하며 정면으로 거슬렀던 사건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흠으셨던 사건이다(11:8). 그러므로 빙하시대는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흠으시는 과정의 하나로도 이해될 수 있다.

빙하시대 당시에 육지를 덮었던 눈(얼음)의 근원은 바다였으므로 그 얼음의 성장은 해수면의 높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빙하시대의 정점일 때 육지의 1/3을 덮었던 얼음의 양을 환산하면 바닷물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얼음의 부피는 당시 해수면을 120m나 낮출 수 있는 양이다. 이는 오늘날 대륙붕의 대부분을 드러내게 하는 엄청난 양이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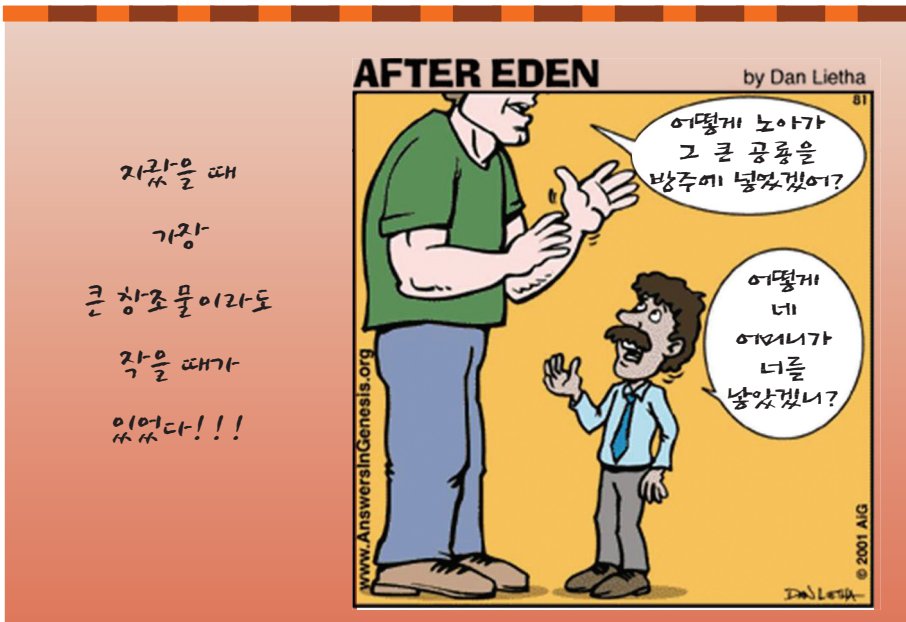
륙붕이란 “지금은 바닷물에 의해 잠겨있지만 육지의 연장선”을 말하는데 가장 깊은 곳이 130-140m의 수심을 보여준다(대륙붕에서 더 바다 쪽으로 가면 갑자기 가파르게 낮아지는 대륙사면을 지나 심해로 들어가게 된다, 표지 그림). 빙하시대 때 120m의 해수면이 낮아졌다면 이때 드러난 대륙붕이 각 대륙의 다리 역할을 함으로 사람들이 건너가기에 용이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아시아와 북미를 나누고 있는 베링해(Bering Sea)도 빙하시대에는 육지로 드러났으며(그림), 아시아와 호주 역시 대륙붕이 드러나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이때 해안가는 따뜻한 바닷물로 인해 눈보다는 비가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해안가에는 빙하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앞 단원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빙하시대가 약 500년간 지속되었다면 해빙기는 거의 야곱 때까지 이른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적어도 300년이란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각 대륙으로 사람들이 건너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리고 인류가 각 대륙으로 분산 된 후 해빙기 때 육지의 얼음이 녹으며 다시 해수면이 상승하여 대륙붕이 다시 물에 잠김으로 서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흠으시는 것은 언어의 혼잡이 주된 방법이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빙하시대의 시기와 성경적 역사를 고려할 때 육지 상에 얼음을 누적시키므로 해수면을 낮추며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해빙을 통해서 서로 건너기 어렵게 만드는 모습은 창조자만이 가능한 지혜와 능력임을 알 수 있다. 바벨탑 사건은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을 단체로 대적한 마지막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사람의 염색체(23 쌍)

DNA가 많으면 진화된 생명체일까?

고등동물이나 하등동물이란 말이 있다. 어디까지가 하등 동물이고 어디서부터가 고등동물일까? 구조가 간단한 동물들을 하등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 진화가 많이 되었다는 고등한 생명체는 DNA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동물 세포든지 식물 세포든지, 고등동물 세포든지 하등동물 세포든지, 모든 세포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등한 세포나 하등한 세포가 따로 없다는 말이다. 사람 세포의 평균 지름은 1mm의 100분의 1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맨 눈으로는 세포 한 개를 직접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세포가 얼마나 복잡하느냐 하면 보잉 747같은 대형 비행기 200대 이상을 축소시켜서 그 세포 크기의 공간 안에 질서 있게 집어 넣어 놓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비행기 한 대의 부품은 약 500만개, 세포 한 개의 부품은 10억 개가 넘는다.)

세포의 크기와 전체적인 모양만 보고 세포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세포 안을 들여다 볼 수 만 있다면, 그리고 그 세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만 알게 된다면, 그 복잡함과 정교함에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 것이다. 진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했던 위대한 생물학자 파스퇴르는 이렇게 고백했다.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창조자의 작품들에 깜짝 놀란 채 서있게 된다.” 진화론적인 의도만 없다면, 하등동물 세포가 고등동물 세포보다

간단하다거나 하등하다는 표현을 할 세포생물학자는 없을 것이다.

유전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각 생물의 유전정보의 총 양(genome)이 진화 관계와 상관이 없고, 각 종류는 모두 다 고정된 양의 유전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진화론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또, 상상했던 진화 순서와 유전정보 양이 비례하지 않는다. 유전물질 양과 진화 정도가 관계가 있다면 조류→포유류→어류→양서류의 순으로 진화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단순하고, 형편 없다고 생각하는 아메바가 현재 알려진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유전정보(사람의 220배)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염색체 수와 진화 단계가 상관이 없고, 유전자 수도 진화와 관계가 없다.

사람의 유전자 수는 놀랍게도 20,000~25,000 개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수를 모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등하다는 C. elegans라는 길이 1 mm밖에 안 되는 선충(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과 같은 동물)의 유전자가 사람



과 비슷한 약 20,100 개, 2.5 mm밖에 안 되는 초파리도 약 14,000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쥐, 고릴라, 침팬지 그리고 성게(23,300 개)가 사람과 비슷하고, 복어(27,918 개)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등동물 운운 하는 것은 진화론에 세뇌되어 하나님의 깜짝 놀랄 작품들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얽잡아 보는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은 더 발달 된 것, 덜 발달 된 것,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각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된 중요한 것들이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 1:16).



최우성 박사
생리학

ACT News

탐사여행 / 신학교강의 /
창조과학학교 / 2011년 일정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본 Love Creation

지난 9월 20-25일 6일간 48명이 일본에서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인 탐사여행으로는 여섯 번째이지만 전원이 본토에서 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젠만 부회장은 지난 2년간 다섯 번에 걸쳐 일본의 창조과학 집회인 Love Creation을 인도해 왔는데 그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참석했던 분들 전원은 탐사여행의 중요성을 알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수십억 년의 진화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 했습니다. 저녁 정리 세미나를 마치고 매번 참석자들 가운데 3-4명이 간증을 나누었는데 이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훌륭한 순서였습니다. 일본의 상징적 교회라 할 수 있는 요도바시 교회의 미네노 목사님을 비롯해서 10분의 목회자뿐 아니라, 거의 20개 현(미국의 주와 비슷한 개념)에서 골고루 참석하므로 앞으로 일본 전역에서 창조과학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앞으로 일본에서 창조과학 사역, 특히 Love Creation과 탐사여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Love Creation은 일본 전역에 순회로 진행되는 것과, 탐사여행은 한 해에 세 번 정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탐사여행에는 일본 CGN-TV에서 탐사여행 전 과정을 촬영함으로 탐사여행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필름 역시 일본에 탐사여행을 홍보하는데 귀한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랑학교

지난 9월 13-17일 한국의 대안학교인 이랑학교(교장 정용갑 목사)에서 선생님들과 전교생 45명이 닷새간의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전북 진안의 이랑학교 학생들



일본 Love, Creation 탐사여행



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 탐사여행

전북 진안에 캠퍼스가 있는 이랑학교는 성경적 세계관과 선교에 방향을 두며 교육하고 있는 기독교 중고등학교입니다. 개교 2년이 되었는데 중 고등학교 각각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탐사여행에 참석하셨던 정용갑 목사님께서서는 개교하기 이전부터 탐사여행을 학생들에게 필수로 이수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탐사여행 내내 진지할 뿐 아니라 빠르게 이해하는 모습들, 그리고 탐사여행 마지막 날 각 학생과 선생님의 간증은 탐사여행의 성공적 결과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경에 대한 확신, 자신이 크리스천임에 대한 자랑스러움, 아울러 앞으로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비전까지... 미래가 기대되는 한마디 한마디였습니다.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

지난 9월 26-29일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담임목사 강일진)에서 3일간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는 지난 겨울 유학생 탐사여행의 후원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1세뿐 아니라 2세들도 창조과학세미나를 열어 창조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했었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계기로 내년 봄에 2세를 위한 탐사여행을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는 현재 라스베가스 남서쪽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창조과학을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는 도구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A 온누리교회

지난 노동절 연휴(9월 4-6) LA 온누리교회(담당목사 안광진)에서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LA 온누리교회는 매년 이맘때 탐사여행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탐사여행을 정기적 행사로 갖추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5					1	2	3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011 일정

창조과학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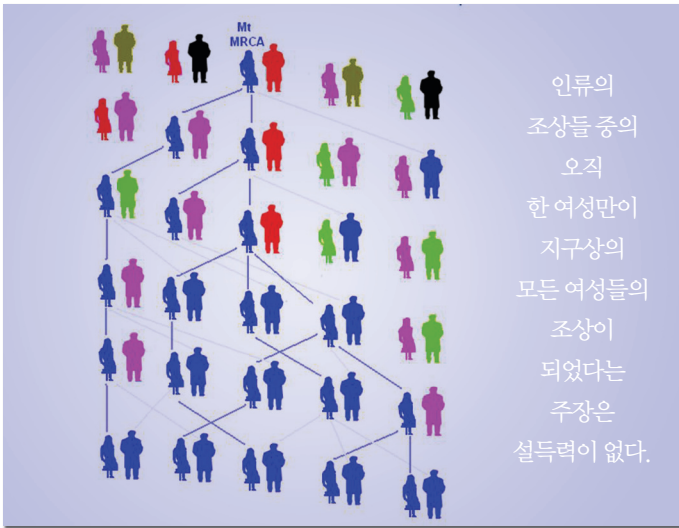
시카고 지역의 11기 창조과학학교는 9월 10일부터 미드웨스트 장로교회(담임목사 김영건)에서(매주 금요일) 30 명이 등록한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847-845-5368로 연락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최우성 박사가, 10월 8-9일은 중부 창조과학학교 홈컴딩데어로 이재만 선교사의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학교 강의

매 년 진행되는 World Mission 대학교 겨울 특강이 올 해에도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집중강의로 진행됩니다. 이재만 부회장, 최우성박사, 최태현 강사가 팀이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베데스다 대학교에서도 생명과학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와 사역자들이 올바른 창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일정

이제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을 계획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창조과학선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교회와 단체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정이 감사하게도 계속 바빠지고 있습니다. 새 해에 창조과학탐사여행이나 창조과학학교 혹은 세미나를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셔서 일정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의 분자세계

1987년 1월 1일자 학술지(Nature 325: 31-6.)에 지금까지의 진화론 연구의 경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세계 곳곳의 여성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이들의 염기 서열(nucleotide sequence)의 변이를 추적하여 계통도를 만들어 본 결과 버클리대학(U. C. Berkeley)의 생화학과 교수인 윌슨(Allan C. Wilson) 박사 등 저자들은, 현생인류의 공통 조상이 지금으로부터 20만년 전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방에 살았던 한 여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20만년이라는 숫자는 백만년이면 2~4%정도의 미토콘드리아 DNA변이가 있을 것이라는 동일과정설적 가정 하에 계산된 수치이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핵 안에 있는 DNA처럼 양쪽 부모의 DNA가 서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여성을 통해서만 승계되고 유지된다. 그들은 현인류의 모든 여성들은 한 여자로부터 유래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진화론자들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그 가상의 최초의 여인을 성경 속의 최초의 여인과 동일하게 “하와(Eve)”라고 명명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 연구 결과는 기독교계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로 진화론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동일하게 진화의 과정을 걷고 있던 다른 인류의 조상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멸종되거나 자손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지만 오직 그 최초의 여인만이 운 좋게도 지구상의 모든 여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궁색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 이후 “그렇다면 과연 그 최초의 여인이 존재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2010년 6월)에 Rice대학의 연구팀은 “그 시기가 20만년 전인 것

같다”고 Theoretical Population Biology에 재차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들은 앞의 월슨 박사가 주장한 연대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재차 확인된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진화론자들이 침단과학이라고 주장하는 분자시계(molecular clock, DNA 변화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기법이다)가 사실은 기존의 진화론 이론에 근거하여 모델링된 것이고, 여러 진화론적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계수들의 보정(calibration)조차도 진화론의 시간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침팬지와 사람이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독립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연대를 5백~7백 만년 정도라고 가정 한 후에 침팬지와 사람의 염기서열의 차이에 근거하여 돌연변이 속도(rate of mutation)를 추정하고, 그것에 기준하여 샘플의 연대를 추정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순환논리(circular reasoning)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돌연변이 속도가 외부의 영향이나 집단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근거 없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다.

월슨 박사의 연구발표 이후 심지어 진화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기간이 10만~20만년 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으며 분자시계에 의한 추정이 상당히 임의적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유명 학술지인 Science(1998)에 진화론자 기보스 박사는 “돌연변이 속도가 기존의 방법으로 보정된 것보다 더 빠를 것이라 추정되며 아무도 안 믿겠지만 심지어 6000년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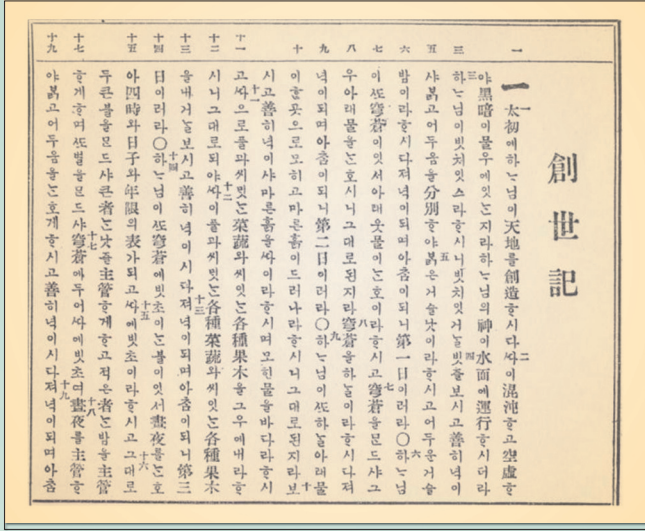
한 편, 2008년 창조론 과학자 카터등은 이전의 연구보다 훨씬 많은 800개 이상의 샘플들을 조사하여, 현재 지구상 모든 여성들과 최초의 여인간의 미토콘드리아 DNA(총 염기 수 16,569) 평균 염기 차이가 진화론자들의 기대보다 훨씬 적은 평균 21.6 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변이 속도가 핵 안에 있는 DNA보다 빠르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적다는 보고는 진화론 과학자들을 상당히 당혹케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연대와는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실 진화론은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진화론의 핵심기반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신다윈주의의 핵심 기반조차 최근에는 진화론 자체 진영으로부터 부인되고 있다. 진화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중간화석의 부재 때문이다. 그래서 단속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속적인 진화를 주장하는 신다윈주의의 주류는 치명적 갈등관계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 인류에 대한 연구들은 진화/창조론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같은 연구 대상물을 상대로 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연구하더라도 결국은 그 연구자의 배경신념과 전제에 의해 모델링이 다르게 되고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동원한 진화론 과학자들의 무신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주장에도 겁을 먹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 창조나 진화는 실험실에서 검증/재현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이며 오직 배경신념에 의해 추정되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 줄 창조과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활용을 부탁 드리는 바이다.



김무현 박사
해양토목공학



우리는 깨달아 아는가?

누군가가 진리 혹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그는 어떻게 자신이 발견한 것이 사실인 줄을 아는가? 예를 들어, 사람은 죽는다는 지식은 어떻게 확고한 지식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에는 네 가지가 있다. 경험, 논리, 직관, 그리고 계시가 그것이다.

첫째, 경험은 과학적 방법론이 그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길”이다. 과학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실험을 통해 재현할 때, 그 현상을 하나의 잠정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실험 혹은 자연적인 관찰은 결국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된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과학적 연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가능한 대상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통적 과학의 입장에서 신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신 뿐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경험적 지식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저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는 수학과 같은 관념적인 지식체계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길”이다. 경험이 확고한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연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연구 결과도 언제나 같을 수 없다. 인간은 모두 제한된 경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종합적이고 추상적인 진리는 경험만으로 얻을 수 없다. 논리적 지식은 그렇지 않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이며, 원의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는 언제나 일정하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 걸어나가면 논리적으로 온세상 어린이를 만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는 논리로 알 수 있

는 것이다. 이제 과학적 활동은 이런 논리적 결론이 경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길의 문제점은 논리의 출발점인 전제가 진리인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기에 죽는다면, 모든 사람이 죽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논리적 지식은 그 출발점이 진리일 때만 전제가 진리일 수 있다. 둘째로 논리로 알 수 있는 것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삼각형이라는 약속에 내재된 속성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논리는 경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지구가 둥글어도 온세상 어린이를 실제로 다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셋째, 직관은 예술이나 종교와 같이 논리와 경험을 초월하여 “깨달음”을 강조하는 지식체계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길이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보면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일 것 같다” 할 때 그 지식은 직관에 의해 얻어진 지식이다. 과학과 관련해서 직관은 과학적으로 의미있는 질문을 얻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핀치새를 보면서, “왜 이리 다양한 핀치가 존재할까? 아! 생물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닐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직관을 사용한 것이다. 직관의 문제점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관은 인간의 번뜩이는 통찰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비약적이고, 경험의 관점에서 보자면 관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예를 들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그것을 설명하려 하면 그 지식은 다소 우스워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시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이고 지적인 신의 가르침에 의해 지식을 얻는 길이다. 위의 세 가지 길은 저마다의 장점과 한계가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지워진 한계이다. 계시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성경이 바로 계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깨달아 알았느냐” 라고 물으시고서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위의 세 가지 길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시고 계시의 지식을 욥에게 전하신 셈이다. 우리가 세상의 시작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태초에 누구도 거기 없었다), 논리적으로 유추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많은 논리들을 보라), 직관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그 직관으로 수많은 기원설화들이 나왔음을 우리는 안다). 바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받았기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계시가 과학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계시와 과학적 지식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성경에 적어놓으셨을 뿐이고, 인간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오감과 이성과 직관으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따름이다.

신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그 주장이 자신의 경험이나 논리, 혹은 직관 때문이라면, 이 네 가지 길 가운데서 길을 잃은 셈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 42:3). 오늘날 신에게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길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진정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 찾는 이가 적다 (마태복음 7:14). 그 길은 성경 안에 있다.



최태현 강사
행정학

탐사여행 후기

(7/15 개인모집; 7/19 엘바인온누리교회; 7/2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나는 왜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믿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미워하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 이혜연, 새생명 비전교회

하나님의 창조 하심에 대하여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탐사여행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하심과 섭리에 대해 많이 놀랐습니다. 미국 비전트립 일정 가운데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이 나 스스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김준영, 부산부전교회

그랜드캐년의 형성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지질학적 설명을 노아의 홍수에 의한 새로운 진실에의 접근을 알게 됨으로써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송재문, LA 온누리교회

대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믿음을 한층 강화시켜주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이론을 성경을 통해 변호하는 진지함에 감사드립니다. - 김병수 목사, 나성찬미교회

알면 알수록 놀라운 창조과학이다. 성경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데 방해하고 있던 나의 패러다임에 진화론이 미치고 있던 영향력이 이제 모두 깨어지길 바란다. - 조혜원, 분당 샘물교회

기존의 사상이나 과학적 사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출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었으며, 또 태초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과정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탐사여행이었습니다. - 송일유, 부산부전교회

인간이 만들어낸 패러다임 속에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온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야 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이 삭, 부산부전교회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 시대 창조과학이 성경의 하나님 창조의 내용이 사실이란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일남, 엘바인 온누리교회

이번 탐사여행은 진화론에 대한 정공법으로 진화론이 얼마나 영성한 가설 중의 하나인가를 확인하였고 단지 상상력이 출중한 작가의 작품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정면 돌파는 정말 좋은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은, *얼바인 온누리교회*

탐사여행 내내 기존의 상식과 지식을 뒤엎는 비디오와 설명은 그 동안의 의문과 궁금증,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명쾌하게 풀어 버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사실로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억지 믿음이나 지적인 자살을 감행하지 않아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이제 그 누구에게도 사실인 성경을 자신이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희승, *얼바인 온누리교회*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난 탐사여행이 벅찬 감격과 놀라움, 충격과 은혜로 마치게 되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 김성아, *얼바인 온누리교회*

저는 이런 여행은 처음으로 말 그대로 창조과학 탐사여행이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좋은 경험은 진화론 강의뿐만 아니라 세도나에서 지층, 사층리 화석 강의라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다시 또 하고 싶은 여행이며 저의 인생에 자그마한 도전을 주어 감사합니다. - 정동연, *얼바인 온누리교회*

It's very fascinating to see the work of God and learn all the truths about His work, This has been a tremendous experience for both of us. - 변슬기 & 미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오랫동안 교직 생활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던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였는가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그랜드캐년을 보고 쌓이고, 쌓이고, 깎이고, 깎이는 풍화작용은 어리석은 망상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 이승숙, *OC카운티 한인교회*

그랜드캐년을 보면서 노아홍수 후의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도나를 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허무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시간에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펼쳐지는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 김홍식, *OC카운티 한인교회*

하나님의 창조 하심을 다시 한 번 보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랜드캐년의 형상이 우리의 죄 심판으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것에 놀라웠다. - 지민수, *OC카운티 한인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안에 진화론적 생각들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저의 자녀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창조의 진리를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염석화, *OC카운티 한인교회*

두 번이나 가보았던 그랜드캐년을 보며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며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유혜정, *OC카운티 한인교회*

● 지면상 실리지 않거나 편집되지 않은 간증 전문은 홈 페이지 "간증"을 클릭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ACT Schedule

- 11/14 주님의 영광교회 (최태현), LA, CA
 11/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최우성, 562-653-0168), Cerritos, CA
 11/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TIMA)
 11/21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11/22-24 창조과학 탐사여행 (J국 교회 지도자)
- 12/3-5 그레이스 헬로쉽교회 (이재만), Houston, TX
 12/12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LA, CA
 12/13-23 월드미션대학교 겨울 특강(이재만, 최우성, 최태현), LA, CA
 12/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은혜의 방주교회 EM, 213-381-1390)
 12/26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 샌디에고에서 출발, 858-874-2412)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EM 탐사여행, 213-381-1390)

2011년

- 1/3-5 11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1/29-2/1 KMWf 선교사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2/9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2/16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2/23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2/28-3/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생터 성경사역원)
- 3/4-5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512-454-1727), TX
 3/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951-245-9500)
 3/21-31 아키타, 아오모리, 센다이, 나가노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4/2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4/29-5/1 그랜뷰 침례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과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